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18 | 2018년 3월호

Index

1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서울 양정중 '프로젝트 경제수업'
2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지도교사가 말하는 '프로젝트 경제수업'
3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국어·사회·도덕 교과 통합한 미술 수업
4~5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대구 대곡중 '우리의 소원은 통일' 수업
6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경기 고양제일중의 하브루타 수업
7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경기 지산중의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
8 [이달의 시사 논술]
한국판 미투 운동,
성폭력 인식 바꿀 마중물 될까?
9 [교육 초대석]
'교육선진국' 핀란드 교육 전문가
류선정 한국-핀란드교육연구센터 소장
10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11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게임·놀이 통해 자신감 회복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In&Out' 게임을 실시한 후 수입-지출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학생들. 양정중 제공

서울 양정중 '프로젝트 경제수업'

"그레잇! 스튜핏!" 가상 인물 재무설계하며 어려운 경제개념 익혀요

"○○씨 5년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60살에 은퇴할 것을 고려하면 저축은 필수입니다. 충동구매, 과시소비를 줄이고 지출관리를 통해 저축량을 늘려보세요"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냐고? 아니다. 서울 양정중의 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상인물을 상대로 재무 컨설팅을 하는 모습. 양정중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경제수업'을 통해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배웠다. 중1에겐 다소 어려운 경제수업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학생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수업으로 탈바꿈한 것.

공공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왼쪽)과 공공계정에 모인 금액. 양정중 제공

이 수업을 기획한 김나영 사회 교사는 "경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활 속 경제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며 자연스레 금융개념을 체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사의 수업은 2016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자료집: 금융 교육'에 실렸다.

'프로젝트 경제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6, 7교시에 총 18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용돈관리 프로그램(2차시) △재무설계 컨설팅 프로젝트(7차시) △공공재와 세금 프로젝트(9차시)의 순서로 진행됐다.

저축, 기부… "용돈 관리는 내가 직접!"

1~2차시는 학생들이 용돈을 관리해보며 저축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 김 교사는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하고, 비슷한 월급을 받았지만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며, 두 인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차이를 고민하며 수입과 지출관리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깨달았다. 이후 학생들은 'In&Out' 게임을 실시했다. 이 게임은 학생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경제관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임. 우선 교실 바닥에 큰 네모칸을 그리고, 그 네모칸을 통장으로 간주한다. 학생 개개인은 특정 금액의 지폐 또는 동전 역할을 맡아 네모칸 안과 밖을 오가며 수입·지출의 흐름과 관계를 이해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출을 변화시키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며 돈을 모으려면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얻은 교훈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용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해 보도록 한 뒤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관리하도록 한 것. 학생들은 준비물 구입비, 교통비, 의류비, 간식비 등으로 항목을 나눈 뒤 중요도를 고려해 용돈을 관리하며 자신의 소비습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용돈을 저축하면서 고정 지출과 예비비 개념도 이해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저축과 기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며 자신의 용돈으로 적금도 들고, 기부도 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학문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제지식 쑥쑥 키워주는 가상 재무설계

3~9차시에 학생들은 TV 프로그램의 재무설계 전문가처럼 가상인물의 재무설계를 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4~5인이 한 조가 되어 가상 의뢰인의 소비패턴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재무설계를 하는 것.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재무설계를 할 때는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함을 배웠다. 한 학생은 가상 의뢰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빚만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소비습관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 교사는 "의뢰인이 만약 은퇴해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해 학생들이 미래까지 고려해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팀원과 함께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 위해 갖출 민주시민의 자세도 배운다

10~18차시에는 공공재와 세금의 성격을 살펴보는 세금, 공공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세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지역의 시민이 되어, 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특징과 인구 구성과 같은 가상의 자료, 가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다채롭게 살펴보며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가상의 시설물을 설치할지를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배운 학생들은 국가가 세금을 왜 걷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김 교사는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공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공공재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0원을 나눠주고, 복도에 따로 설치해둔 '공공계정 박스'에 자유롭게 돈을 넣도록 했다. 이후 공공계정 박스에 모인 돈을 다시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공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은 깨닫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게임 후에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공공계정에 돈을 내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려 모두에게 손해가 됨을 이해하면서 시민성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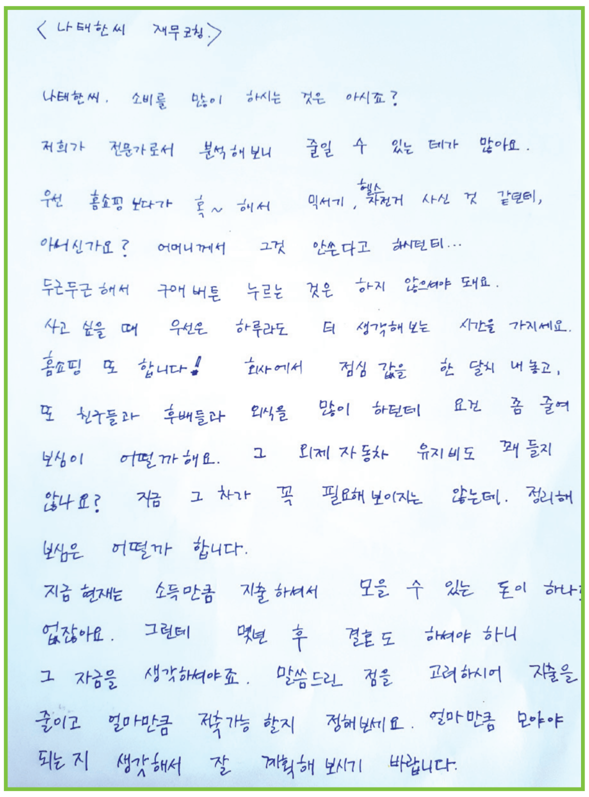
경제문제 해결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동심 길러요!

'프로젝트 경제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용돈관리 프로그램 △재무설계 컨설팅 프로젝트 △공공재와 세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 교사는 "기계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지를 푸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수업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경제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가상인물의 재무설계를 위해 토의 중인 양정중 학생들. 양정중 제공



<나태한씨 재무코칭>

나태한씨.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아시죠?
저희가 전문가로서 분석해보니 줄일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우선 홈쇼핑 보다가 혹~해서 믹서기, 헬스 자전거 사신 것 같던데,
아시신가요? 어머니께서 그것 안쓴다고 하시던데...
두근두근 해서 구매 버튼 누르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고 싶을 때 우선은 하루라도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홈쇼핑 또 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값은 한 달치 내놓고,
또 친구들과 후배들과 외식을 많이 하던데 요건 좀 줄여
보심이 어떨까 해요. 그 외제 자동차 유지비도 꽤 들지
않나요? 지금 그 차가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정리해
보심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만큼 지출 하셔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몇년 후 결혼도 하셔야 하니
그 자금을 생각하셔야죠. 말씀드린 점을 고려하시어 지출을
줄이고 얼마만큼 저축가능 한지 정해보세요. 얼마만큼 모아야
되는 지 생각해서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정중 학생들이 가상인물에게 내린 재무설계 내용. 양정중 제공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대다수 학생들은 경제를 어려워하고, 경제학습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학습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제와 관련된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학생들이 완벽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며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빽빽하게 짜여진 학원 스케줄과 기계적인 반복 학습으로 과부하에 걸려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기 귀찮아했으며, 지식을 소화하기 쉽게 떠먹여주는 학습방식에 익숙해 문제를 제시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질문을 건네며 긴장감을 풀어준 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만약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갖고 있으나 실행방법을 모르는 경우, 답을 가르쳐주기보다 필요한 도구나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처음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귀찮아하던 학생들이 점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교사가 제공한 가상 인물의 시나리오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넣어 내용을 각색한 뒤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확장해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과 자료탐색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문제 풀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 기계적인 암기 학습을 한다. 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친구와 대화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깊이 탐구하는 자세도 갖게 됐다.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생별로 성취수준을 달리해 적절한 피드백 제공"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학생들이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카드 등을 이용해 가장 맘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고 그 카드가 왜 좋은지 자신의 마음을 친구와 이야기하며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상황에 적절히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도록 학생들의 관심사를 유심히 관찰해 동기부여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설계해보는 것이다. 동기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찾고 탐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부족한 경제개념을 보완하려면?

경제실험과 게임 등을 진행한 후 해당 활동에서 경제 이론을 도출한 뒤 교사가 간단히 정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경제 지식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하면 좋으나 이 경우 잘못된 개념을 올바른 것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니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둠 편성 시 학생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 수업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므로, 조에 한두 명씩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춘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에 유용한 사이트를 안내하는데, 신뢰도가 높은 원자료를 갖춘 통계청 등의 홈페이지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학생에게 배부하고 자연스럽게 읽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언

모든 학생이 같은 성취수준을 이룰 수 없다. 학생들은 모두 각각의 장점과 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세심하게 관찰해 그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모둠원 간의 서로 다른 재능(장점)을 발견하고, 협업의 의미를 깨닫게 하면 좋겠다.

또한 수업의 평가 방식은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물이나 발표 등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똑똑한 친구들끼리만 모둠을 구성하고 싶어하고 "걔는 무임승차해서 같은 조 안 할래요"라고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도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보다 △학생 개인이 이전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했는가 △문제에 얼마나 몰입하며 호기심을 가졌는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찰하고 학생 특성에 맞게 피드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래엔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대전대청중의 미술·국어·도덕·사회 교과융합수업

미술활동하며 '우리' 함께 사는 법 배워요

대전대청중은 1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수업에 국어·도덕·사회교과를 융합한 수업을 진행했다.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잔치'라는 주제의 이 수업은 타 교과의 자기이해, 타인 배려, 공동체 의식 함양을 다루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해 미술 활동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목표. 예를 들어 학생들은 다양한 표정을 품은 우리나라 '탈'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며 자신의 감정과 표정을 이해하는데, 이 때 △국어 '나의 삶, 나의 글' 단원 △사회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 △도덕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단원에서 배운 자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상기해보는 식이다. 전국화 미술 교사의 이 수업은 미술·국어·도덕·사회로 분리된 교과를 효과적으로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가 주최한 '2017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 교사는 "타 교과 융합을 통해 수업을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당당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미술·국어·도덕·사회 교과융합수업 수업 지도안

대상	중1	과목	미술, 국어 도덕, 사회	차시	28차시
학습주제	전통미술로 행복한 자유학기 '잔치' 수업				
학습목표	▶탈을 통해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민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미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수업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직접 전시해볼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준비물	필기구, 색연필, 물감, 석고붕대, 화선지, 도자기 도판 및 안료 등				

1~10차시 수업 주제	나를 위한 잔치 프로젝트
1~2차시	▶수업 주제 및 흐름 안내하기 -전통미술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탈의 종류와 특징·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다양한 탈과 탈춤 감상하기, 석고의 특성 및 제작 과정 이해하기 -표정 짓기, 표정 읽기를 통해 자기이해하기
3~4차시	▶모둠별 작품계획서 작성하기 -모둠별 주제 선정하기 -전통탈의 역할과 의미를 알고 변형·재구성하기,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하기
5~8차시	▶탈 만들기 -각 모둠 내 역할 분담하기, 석고의 특성과 제작과정 숙지하기 -석고붕대로 표현한 탈에 연필로 스케치·채색하기 -제작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기 -모둠별로 탈의 의미와 특징 -제작의도를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기, 탈 역할극 준비하기
9~10차시	▶발표하기 -모둠별 발표(탈 역할극 포함)하고 작품 감상 평가지 작성하기

교사의 도움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표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단순히 전통 탈의 특징과 조형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그린 탈을 직접 만들어보며 자기표현 방법,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표정, 시험을 보기 전후의 표정, 게임을 할 때의 표정을 떠올리며 스스로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탈을 만든 다음에는 자신이 만든 탈을 직접 쓰고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기표현력을 한 층 더 높이기 위해서다. 대본도 학생들이 직접 적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실력도 기를 수 있다.

11~18차시 수업 주제	너를 위한 잔치 프로젝트
11차시	▶수업 주제 및 흐름 안내하기 -'민화를 담은 도자기 도판 만들기' 제작과정 이해하기 -민화의 개념과 특징, 색채에 대해 이해하기 -다양한 민화 감상하고 민화 관련 동영상 시청하기 -도자기의 재료와 제작과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
12~13차시	▶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하기 -모둠별 토의를 통해 주제 선정하기 -작품계획서 작성하기
14~16차시	▶도자기 도판에 민화 그리기 -백자 도자기 초벌 도판의 특성과 안료 사용법 숙지하기 -도자기 도판에 민화 스케치하고 채색하기 -모든 제작과정 사진 및 동영상 기록 남기기
17~18차시	▶발표하기 -모둠별로 주제, 화면구성, 제작의도 등에 대해 발표하기

교사의 도움말

11~18차시 수업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나에 대한 이해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이를 위해 전통 민화에 표현된 우리 조상의 고민과 소망을 읽어내고, 나아가 친구들의 고민과 소망 역시 들어봤다.

또한 모둠원이 민화의 일부분을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합쳐 하나의 민화를 완성해내도록 했다. 학생들은 힘을 합쳐 △학교폭력을 물리치는 해태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리는 어해도 △책과 대적하는 우리들 등의 작품을 만들며 협동심을 길렀다.

19~28차시 수업 주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자연을 위한 잔치 프로젝트
19~21차시	▶스미고 번져서 우러나오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알아보기(지역 미술전문가와 협력 수업) -대형 화선지에 물감을 뿌리고 던지며 자유롭게 표현하기 -대형 화선지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 선택하여 액자 만들기 -선택한 부분을 자신의 꿈과 연관지어 스토리 만들고 발표하기
22~24차시	▶'삶을 바꾸는 공간' 우리 학교 벽화 그리기 -공동체 미술 작품의 의미 이해하기 -모둠별로 학교 내 벽화 그릴 수 있는 장소 탐색하기 -우리나라 자연과 전통문화의 특성 반영하여 그림 주제 정하기 -모둠별 작품계획서 작성, 발표 및 감상하기
25~28차시	▶'한국의 美' Art Fair 전시회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 직업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모둠별로 교내 '한국의 美' Art Fair 전시회 장소 탐색하기 -모둠별 전시계획서 작성, 발표 및 감상하기

교사의 도움말

'잔치'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는 나와 너를 넘어선 '우리'다. 지역사회 미술전문가와 함께 자연물을 이용해 진행한 미술활동, 학교 벽화 그리기, 교내 미술 전시회 등을 통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시켜주고자 했다.

'한국의 미' Art Fair 전시회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을 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시를 기획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보자.

교사의 코멘트

이 수업은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미술활동으로 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국어, 도덕, 사회 등 각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려면 비슷한 주제의 단원을 비슷한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타 교과 교사들에게 수업 순서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타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미술시간에 다시 설명하는 것은 지양했다.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 대신 '국어·사회·도덕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자'고 말하며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국화 대전대청중 미술 교사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안윤주 대구 대곡중 국어 교사의 거꾸로 교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창올림픽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이 꾸려졌다. 남북이 한 민족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하지만 요즘 중학생들에게 '통일'은 낯설고 재미없는 개념이다. 때마다 통일을 주제로 한 계기교육이 이뤄지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기 때문. 대구 대곡중의 안윤주 국어 교사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통일 교육이 정작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을 보며, 재밌는 통일 수업을 해 보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어 수업시간에 통일과 6.25전쟁을 다룬 소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통일을 보다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수업은 평가가 없는 자유학기제 기간에 주제선택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면 얼마든지 교과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회, 도덕 등 타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요소도 많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교과-국어	학기-1학년 2학기	차시-12차시
단원	단원과 관계없이 통일이나 6.25전쟁을 다룬 소설 수업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음. (대곡중의 경우 하근찬의 소설 '수난이대'를 배운 후 진행함)	
주요 핵심성취기준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수업 내용	1. 게임과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2. 통일 국가를 건설해보며 통일 한국에서의 삶 생각해보기 3. 통일 주제로 그림책 만들기	

▼디딤영상

차시	1차시	2-3차시	4-7차시	8차시	9~12차시
수업	통일 이해하기	통일에 대한 생각 확장하기	통일 국가 건설 (프로토타입 제작)	통일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통일 주제로 그림책 만들기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2016년 1월, KBS에서 방영된 『오늘, 미래를 만나다』 12회 '대한민국의 재도약 키워드 통일을 말하다-1부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의 통일 이야기' 편을 디딤영상으로 제공한다. 분량이 다소 긴 편이므로 학생들이 사전에 보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차시] 통일 재밌게 이해하기

디딤영상 주요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통일의 이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등에 관해 5~10분 가량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구체적인 통일의 개념, 과정 등은 퀴즈 게임을 통해 익힌다. '카훗(Kahoot)'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손쉽게 모둠별 게임 대항전을 진행할 수 있다. 카훗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문제가 퀴즈 형태로 출제되는 게임으로, 교사가 제시한 PIN 번호를 입력하면 반 학생들 전체가 같은 문제로 동시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똑같이 정답을 맞히더라도 정답을 맞히는 속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다. 게임 진행을 위해 사전에 모둠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한 대씩 나눠주어야 한다.

[2~3차시] 통일에 대한 생각 확장하기

가로 세로 각 3칸, 총 9개의 칸 가운데에 주요 개념을 두고, 이와 연관된 키워드 8개를 주변 칸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만다라트 활동지를 활용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켜본다. 먼저 '통일'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8개씩 적은 후, 각 단어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다시 8개씩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통일에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통일? 일단 생각이나 한 번 해 보자

안윤주
대구 대곡중 국어교사

Q. 이 수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1차시 게임 진행을 위해 모둠별로 한 대씩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두어야 한다. 또한 통일 국가 건설하기 차시에서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색종이, 마분지, 우드락(폼보드), 점토, 수수깡 등 만들기 준비물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 카드, 그림 카드, 이미지 카드 등 다양한 비주얼씽킹 카드도 필요하다.

그림책 만들기 차시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그림책 틀'을 준비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물이 있을 때 학생들이 더욱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잘 만든 책은 모아서 학기말에 전시하거나 후배들에게 보여줄 것임을 알려주면 동기 유발에도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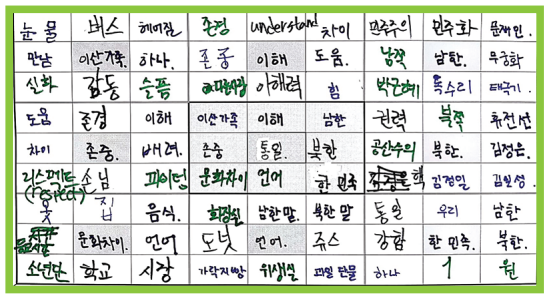
Q. 수업에 여러 활동/게임이 등장한다. 다양한 활동/게임을 활용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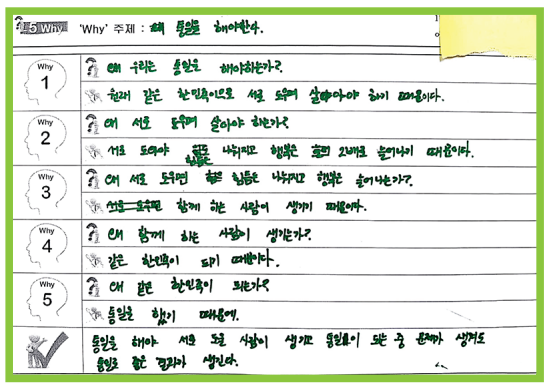
중학생들은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수업 중에 다양한 게임을 시도하는 것은 보다 재밌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딴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다만, 학생들이 너무 게임에 몰입해 수업의 본질을 놓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평소 거꾸로 교실이나 활동 중심 수업을 해 보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업을 해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Q. 타 교과와의 연계 요소가 있다면?

만약 국어 수업시간에 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통일이나 6.25전쟁을 다룬 소설을 배울 때 그 소설과 연계해





'통일'을 주제로 한 만다라트 활동지(위)와 5WHY활동지 예시. 대곡중 제공

대한 단어를 많이 떠올려 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후 '5WHY 활동지'를 채우며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본다. 5WHY 활동이란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그 답을 질문 삼아 또 다시 답을 찾는 자문자답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것. 예를 들어 '통일을 해야 한다'가 주제라면, 첫 질문으로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이에 '남북은 한 민족이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답한 다음, 다시 '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으로 답을 생각해보는 방식이다.

앞선 활동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통일 국가 건설하기'의 사전 활동 격으로 땅따먹기 게임을 한다. 교사가 모둠별로 전지를 나눠주면, 학생들은 각자 바둑알을 3회씩 튕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4~7차시] 통일 국가 건설하기

학생들이 각자의 영역에 통일 후 필요한 건물을 짓는 모습. 대곡중 제공

학생들은 땅따먹기 활동을 통해 각자 확보한 땅 위에 '통일이 되었을 때 필요한 건물'들을 생각해 지어본다. 건물은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도 좋다. 자신이 확보한 땅 위에 모두 세울 수 있다면, 개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건물이 필요한 이유를 학생 스스로 생각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건물을 왜 지었느냐고 물었을 때 학생이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건물은 짓지 말아야 하는 것. 예를 들어 기차역을 만든다면 '통일이 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는 열차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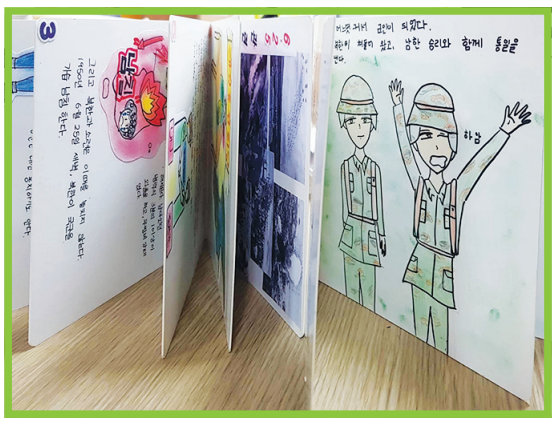
만들기는 2~3차시가량 소요된다. 만들기가 끝나면 모둠 내에서 각자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런 건물을 만든 것인지 모둠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모둠 내에서 의견교환이 끝나면, 다른 모둠의 통일 국가를 둘러보고,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

[8차시] 통일에 대한 생각 정리하기

이미지를 활용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미지가 그려진 카드 중 하나를 고른 후 이미지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각자 생각이 정리되면 모둠 내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모둠별로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4개의 실천적인 규칙으로 정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가 적혀 있는 카드를 8~9장씩 고르고, 그 단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장을 만들어 본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과 '보다'란 단어 카드를 골랐을 경우 "우리는 서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4개의 규칙을 완성하면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9~12차시] 통일을 주제로 그림책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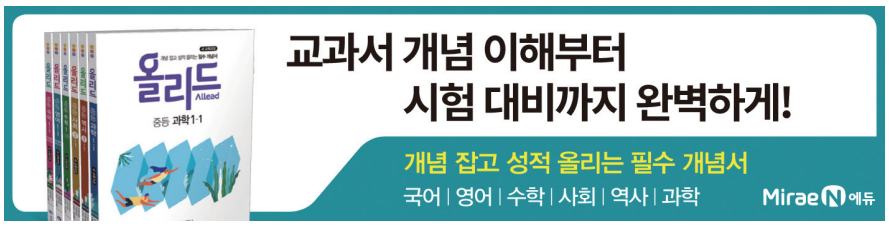
대곡중 학생들이 만든 '통일' 주제의 그림책 결과물. 대곡중 제공

여태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각자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만든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교사는 사전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카드 수십 장을 준비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그림 카드 중 6장의 카드를 골라 이야기의 뼈대를 구성한다. 카드에 그려진 그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순서를 배열한 후 그 그림에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하면 쉽다. 만약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 카드를 구성해도 되고, 중간에 이야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른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 카드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굳이 카드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그림 카드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므로 그림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에 맡긴다.

각자 이야기 뼈대를 완성하면, 거기에 살을 붙여 초안을 써 보도록 한다. 초안을 모두 쓴 학생들에게는 8장의 빈 페이지로 구성된 그림책 틀을 나눠주고 그림과 이야기를 채워 넣어 그림책을 완성하도록 한다. 학생 각자가 자신이 직접 그리고 쓴 그림책 한 권씩을 갖게 되면, 이를 교실에서 돌려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대곡중의 경우 이 수업을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하진 않았다. 다만, 교과 수업으로 이 수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활동지, 그림책 등 수업 중 나온 결과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진행할 수 있다. 그림책 대신 결말 이어쓰기 같은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도덕과 사회 교과목에도 통일과 관련된 단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 교사들과 협업해 통일 관련 교과 학습 내용을 강화할 수도 있다. 만들기의 경우 미술 교과와 연계해 진행할 수도 있다.

Q. 이 수업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만들기 수업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학생들이 통일 국가 건설하기에서 건물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너무 공을 들인다는 것이다. 자칫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업 차시에 따라 이 과정을 다소 간략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통일 국가 건설하기 활동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각 건물의 건설 이유를 고민하면서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다.

또한 그림책 만들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 제대로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카드를 활용해 먼저 이야기의 뼈대를 잡아보라고 하는 것도 보다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들마다 글 쓰는 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글을 완성한 학생들은 미흡하거나 잘못된 표현들을 고쳐 써 보도록 지도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야기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Q. 통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요즘 학생들은 통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란 문제를 떠나 아예 통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단 통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수업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소감문 중에는 "수업 이후에도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전히 확신은 없지만 최소한 통일을 하면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경기 고양제일중 박경란 교사의 하브루타 수업

친구들과 묻고 답하며 공연 기획과 팜플렛 제작해요!

3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하브루타 수업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공부법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기획의 개념은 무엇이지?" "어떤 주제로 공연을 기획할까?" "공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경기 고양제일중의 음악 수업시간. 학생들은 짝과 함께 공연기획이란 무엇이고, 어떤 공연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하브루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브루타 수업은 2명이 짝을 지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 수업. 모둠별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해보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짝과 함께 공연기획의 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답변을 경청하며 자신들만의 개념을 형성한다. 이후 팀원과 함께 어떤 주제로 공연을 기획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경란 고양제일중 음악 교사는 3학년 음악 교과를 재구성해 2학기 수업 '공연기획에 대한 사색(2차시)'과 '음악회 팜플렛 만들기(4차시)'에서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했다. 박 교사는 모든 음악 수업에 하브루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플립러닝으로 토론에 깊이를 더하다!

박 교사는 하브루타 수업에 '플립러닝'을 접목했다. 플립러닝이란 사전에 온라인 강의영상을 시청한 후 교실에서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방식. 박 교사가 수업 방향과 사전미션을 안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면, 학생들은 이를 시청하고 수업 전 미션을 수행하며 토론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쌓았다.

학생들이 수행한 미션은 △관객 연령과 장르, 예산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 기획하기 △공연을 올릴만한 주변의 문화시설 조사하기(시장조사) △작품, 캐스팅,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연기획서 작성하기 △카카오톡 하브루타로 모둠에서 기획하려는 공연 주제를 논의하고, 역할분담 하기 등 총 4가지다.

모둠별 하브루타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고양제일중 학생들. 고양제일중 제공

박 교사는 "학생들은 개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직접 방문해 수용인원과 공연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전화문의로 공연장 대관료를 알아보며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협력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고, 이를 친구와 공유하면서 배려심과 협동심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선 팀원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사전에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교사에게 전송하도록 해 무임승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었지요."(박 교사)

심층토론으로 실현가능성 높은 공연을 기획!

사전미션을 수행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본격적으로 공연기획과 팜플렛 제작을 위한 하브루타를 진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에 맞춰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목표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공연기획 방안은? △우리 모둠만의 창의적 컨셉은? △해당 공연을 선택한 이유와 공연기획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기획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과 같은 질문이 적힌 조별 학습지를 제공한다.

모둠토론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 학생이 기획하고 싶은 공연의 장르와 초빙하고 싶은 음악가에 대해 설명하면, 팀원들은 해당 음악가를 섭외하기 위한 방법과 공연 장소, 대관료, 홍보에 필요한 예산, 문제점 등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10~15분간 심층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공연기획서를 작성한다.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연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박 교사는 "한 모둠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고려해 '호두까기 인형'을 뮤지컬로 재구성한 공연을 기획했다"며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을 공연장소로 선정하고, 뮤지컬 배우를 캐스팅한 뒤 주연배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홍보 수단으로 삼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연기획을 마친 학생들은 팜플렛 제작을 위한 하브루타를 실시한다. △어떤 규격의 종이를 사용하고 △몇 면(4·6·8면)으로 팜플렛을 구성할 것이며 △팜플렛의 콘셉트(메인 색상과 디자인)와 구성요소(인사말, 등장인물 소개, 약력, 공연장 위치, 배경음악에 대한 정보 등)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

박 교사는 "하브루타 수업은 인성교육에도 효과적"이라며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성공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해선 팀원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팀원간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하브루타, 상상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도구"

Q.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대다수 학생들은 토론을 '논리로 싸워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브루타의 핵심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하브루타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들어주고,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대의 의견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일부 학생은 토론 도중에 화를 내는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야만 논리적으로 질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승리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수업 초기에는 학생들이 질문 만들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핵심 질문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적은 학습지를 제작해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하브루타는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이다. 특히 학생들은 현실과 상상력을 통합하는 능력을 가꿀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꿈꾸는 진로를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하브루타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대안을 고민하게 하면서 현실과 꿈이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처럼 현실에는 높은 학습능력을 갖추었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하브루타를 통해 깊이 사고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양하게 된다.

Q. 하브루타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하브루타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답 찾기'에 익숙해 스스로 질문을 구성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답은 없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참여에 소극적인 학생에게 "너는 왜 질문을 안 하니? 질문해봐"라는 강압적인 자세보다 학생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너는 무엇을 준비해왔니?"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박경란 경기 고양제일중 음악 교사

미래엔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경기 지산중 이윤미 교사의 영상 활용 영어수업

화가의 삶 다룬 영상 보며 영어실력 쑥쑥!

"Claude Monet was born on November 14th 1840, and would become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Impressionism(클로드 모네는 1840년 11월 14일에 태어났으며, 그는 인상주의의 창시자중 한 사람이 됐다)."

경기 지산중의 영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하 모네 영상)을 시청하고,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전기를 모둠원과 협력해 읽으며 위대한 화가의 일생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들의 일대기를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한 뒤, 위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상의 회고록을 써보는 활동도 한다.

'모네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보고 모둠활동을 수행하는 경기 지산중 학생들. 지산중 제공

이윤미 영어 교사는 중2 영어 교과서 8단원 'Great Friends and Painters'의 본문 내용을 학생들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차시에 걸쳐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8단원 본문에서는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와 르누아루 작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데, 학생들은 영상과 전기를 통해 두 화가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본문 내용을 보다 다채롭게 이해했다. 이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위대한 화가의 삶, 깊이 있게 탐구

1, 2차시에 학생들은 본문 학습 전 모네 영상을 시청하며 그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감상하도록 영상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풀어 적고, 곳곳에 빈칸을 뚫어 프린트물로 배부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모네의 출생연도 △모네 아버지의 직업 △모네가 학교에서 좋아한 과목 등을 영어로 작성하며 빈칸을 채웠다. 영상 시청을 마친 후에는 모네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학생들은 세로축 또는 가로축을 그리고 시간 순으로 모네의 일생을 영어문장으로 작성해본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모네에게 일어난 사건을 년도별로 정리하면서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영상 시청 후 본문 학습(3차시)을 진행하는데, 모네를 이해하고 본문을 학습하니 단순히 모네의 그림만 보았을 때보다 본문에 더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4차시에는 르누아르를 탐구한다. 이 교사는 르누아르 전기를 발췌해 프린트물로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소(Jigsaw)' 방식으로 이를 읽게 했다. 직소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4인 1조로 모둠을 이뤄 프린트물을 네 개의 파트로 분배해 읽는다. 1번 파트를 맡은 학생은 다른 모둠의 1번 학생들과 모여 해당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본래의 모둠으로 돌아와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 직소활동을 마친 후에는 모네와 마찬가지로 르누아르의 일대기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어려운 글을 혼자 읽으면 금방 포기하지만 직소 활동을 하면 친구와 힘을 합쳐 학습하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도전하게 된다"며 "또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모둠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배려심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인생을 통해 내 미래도 설계!

마지막 5차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가상의 타임라인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회고록으로 바꿔 써보는 활동을 했다. 20세에 유학을 떠나겠다는 학생,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모네와 르누아르의 일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신의 인생까지도 설계했다"며 "모네와 르누아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들이 잘하고 잘못한 점을 관찰하며 위인도 한 명의 인간임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회고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보며 영어 표현 능력도 기를 수 있었지요."(이 교사)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영상 시청 전, 학생들의 흥미 돋우어야"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 길이는 최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긴 영상을 활용할 때는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두면 수업 진행에 효율적이다. 또한 영상 시청과 함께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학생마다 듣기 실력에 편차가 있으므로 영상을 보며 찾아야 할 단어, 소재, 주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안내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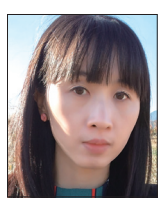
Q.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실제적인 자료를 접하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어가 꼭 필요한 도구임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와 표현, 문법들이 영상에 등장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커지게 된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영어 영상은 본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지난 학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시간 15분을 할애해 영화 '주토피아'를 5분간 시청하고, 핵심 내용을 영어문장으로 요약한 뒤 주요 장면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구문을 자연스레 복습하고,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영상 시청 후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영어문장으로 요약할 때 교사는 지나치게 틀린 문법과 단어를 교정하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대부분 학생이 동일한 문법을 틀린다면 전체 학생에게 해당 문법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자.



▶**이윤미** 경기 지산중 영어 교사

미래엔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현직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확산된 '한국판 미투(#MeToo) 운동'

미투 운동… 한국사회 성폭력 인식 바꿀 마중물 될까?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 할리우드의 한 여배우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하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MeToo'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써 달라"고 언급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다양한 통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미투 운동이 확산된 것.

우리나라에선 지난 1월말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전직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 현직 여검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과거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숨겨왔던 정계, 예술계, 언론계 종사 여성들이 용기를 냈고, 이런 흐름에 '한국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그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피해자들은 왜 활발하게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일까?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확산 계기는?

'한국판 미투 운동'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정치인들도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일부 언론인도 미투 운동에 동참한 것.

예술계에서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감독이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10여 년 전 이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연극계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감독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주장이 잇따라 등장했고, 결국 이윤택 감독은 한국극작가협회와 서울연극협회에서 제명당했다.

미투 운동은 법조계나 예술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직장인 전용 한 익명 SNS에는 '미투 게시판'이 신설된 지 열흘 만에 1600개가 넘는 글이 게재되는 등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간 것.

지난해 말,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권력과 지위를 모두 가졌다고 평가받는 검사조차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용기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는 데에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현직 여검사의 고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시키는데 일조"

한국판 미투 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일탈로 여겨져 온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도록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은 권력과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함부로 희롱·추행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관행으로 인식해온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을 목격하고도 눈을 감거나, 성희롱 발언을 농담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또 SNS를 기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과 미국의 미투 운동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여성의 폭로로 시작됐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은 이들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백할 경우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해고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확산돼 피해자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성폭력 피해자처럼 마음의 상처가 심할 경우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며 "성폭력 문제를 알려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미투 운동,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재 한국판 미투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변주돼 확장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과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 적극적으로 만류·비판하자는 취지의 '미퍼스트(#MeFirst)' 운동 등이 바로 그것.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발했다는 이유로 직장내에서 해당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추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구성원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이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해도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법률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미투 운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조사해 보자.

2. 한국판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논의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국어 1-2 4(1) 토의하기
국어 2-1 3(1) 같은 대상, 다른 생각
국어 3-1 2(1) 마음 열고 토론하기
도덕 ② 4. 도덕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중요성과 방법

참고자료

KBS 라디오, 2018년 2월 9일자, '미투 확산' 성폭력 인식 변화 계기될까?

지도법

학생들은 한국판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문제가 왜 직장과 같은 공간에서 쉽게 발생하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힘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은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통해 미투 운동의 한계가 무엇인지 짚어보며,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어떠한 인식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등에서 남성 성폭력 문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지만, 미투 운동에 남성 피해자의 참여는 미비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논의해본다면 학생들이 사안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혜정 대구 경서중 국어 교사

류선정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장

“한국과 핀란드가 추구하는 미래교육 다르지 않아, 차이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류선정 센터장은 “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수업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존재하는 한국과 달리 핀란드에선 수업에 관해 교원의 자율성이 매우 강조된다”면서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그 안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전국 중학교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식중심 교육에서 역량중심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확대, 과정중심 평가 강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교육계는 이번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며, 이러한 변화가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오랫동안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교육이 개정교육과정의 적용만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에 핀란드의 교육 혁신 시도는 우리 공교육이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다. 10년 주기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핀란드는 2016년 8월부터 미래교육의 방향을 담은 새 교육과정을 공교육 현장에 적용한 바 있다. 마침 지난 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선 ‘핀란드의 미래교육’을 주제로 류선정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장의 기조 강연이 있었다.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류 센터장을 만나 핀란드 교육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정, 한국 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을 묻고 들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는 한국의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핀란드 교육과 관련한 연수 및 세미나를 기획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류 센터장은 주핀란드 한국 대사관의 교육자문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의 핀란드 교육연구원 등을 맡고 있다.

핀란드의 PBL, ‘융합을 연습한다’

‘교육 강국’ 핀란드의 새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일까. 류 센터장은 “새 교육과정에선 핀란드 내 모든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최소 한 번 이상 PBL(Phenomenon Based Learning·현상기반학습)로 수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학교 현장에 PBL 수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PBL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핀란드의 PBL(Phenomenon Based Learning)은 흔히 말하는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류 센터장은 “꼭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정한 문제나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현상’ 그 자체를 배움의 주제로 보자는 차원에서 핀란드는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핀란드 학교에서 진행되는 PBL은 어떤 모습일까. 류 센터장은 핀란드 카우하바(Kauhava) 지역에서 7학년(한국의 중1에 해당)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의 한 토막을 소개했다. ‘급식’을 주제로 한 이 PBL 수업은 음식의 신선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화학 시간에, 식재료의 가격과 급식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수학 시간에,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복지의 역사와 효과를 사회 시간에 배우는 형태로 진행됐다. 굳이 급식의 문제점을 찾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과목이 통합된 주제를 두고 다양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이 배운 지식이 ‘급식’이라는 하나의 현상 안에 어떻게 다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

류 센터장은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그 가짓수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학교에선 어떻게 융합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융합을 하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배운 지식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지켜보고 연습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혁신 차이는? 사회적 지지!

핀란드에서 최근 PBL이 강조되는 것은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확대, 교실 밖 배움의 중요성 등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침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은 핀란드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대부분 한국 교육현장에서도 이미 실천하고 있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이다.

류 센터장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모두 비슷하다”면서 “다만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는 이러한 ‘교육 혁신을 얼마나 사회가 지지해주고 받쳐주느냐’다”라고 말했다.

2016년 8월, 첫 적용된 핀란드의 새 교육과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끝났다. 이후 2년여 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노조, 학부모와 학생, 교육회사,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핀란드 모든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충분한 시간을 들인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거나 혹은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진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된다.

류 센터장은 “새 교육과정은 PBL을 비롯해 평가의 다양성, ICT 활용 등 여러 변화를 담고 있지만 핀란드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에게 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들이 동의했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 덕분에 핀란드의 교육 혁신은 비교적 단기간에도 전체로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주로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정책이 먼저 결정된 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향(Top-down) 전달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변화의 노력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많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일선 현장입니다. 그런데 정책 시행 전에 현장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나 교사들은 ‘이 변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가진 채 변화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책이 탄력을 받아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죠. 교육 혁신이 동력을 얻으려면, 교육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방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류 센터장)

“교원,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전문성 갖춰야”

다양한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내리려면 교원들이 변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류 센터장은 “새로운 변화는 반발과 충돌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미래교육을 위해 어떤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교사 스스로 교육가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뒤따르는 반발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새롭게 시도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학생, 학부모나 기존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사더라도 새 수업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확신이 있다면 이들을 상대로, ‘내가 어떤 근거로 이런 수업을 하고 왜 이런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전문가로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선 교사 스스로 단순한 ‘수업 실연자’로서가 아닌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이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와야 전체적인 교육 혁신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류 센터장)

▶글·사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

식품·의약품 첨가물 분석하며 식의약 전문가로 성장!

타르색소 분리 실험중인 학생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한 섭취와 복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식약처 업무를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는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을 각 지방 식약청을 통해 운영한다. 이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인증 받은 곳.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은 식약처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비자들이 식품이나 첨가물을 섭취하기까지 어떤 관리가 이뤄지는지, 식품 중 유해성분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등을 배우는 것.

업무 소개가 끝나면 식약청 내 실험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데, △식품 분석실 △의약품 분석실 △잔류화학물질 분석실 △중금속 기기분석실 △미생물 검사실 △중금속 전처리실 등을 둘러보며 식약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견학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습수업이 진행된다. 올해는 타르색소 분리와 이산화황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색소와 그렇지 않은 색소가 있음을 배우고, 색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에서 색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 식품 첨가물인 이산화황이나 보존료 검사도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과학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 주니어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 중·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하다(서울 외 △부산 △광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도 비슷한 내용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올해 5월, 7월, 9월, 10월 총 4회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지역 진로체험지원단과 연계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640-1499

▶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식품학 연구원: 식품 중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식품 가공, 생산, 포장,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 식품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반응과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끈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탐구력과 분석력도 갖춰야 한다.

●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의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보호관찰 필요한 이들의 지도·감독 계획 직접 세워요"

전자발찌 착용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 부산준법지원센터 제공

'공무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에는 범법자 중 집행유예·가석방 등을 이유로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생활하되, 범죄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한 이들을 지도·관리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있다. 중학생들에겐 다소 낯선 직업. 이에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직 공무원 업무를 수행해볼 수 있는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7년 교육기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계획을 세워본다. 나아가 해당 계획이 정말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더 나은 지도 방안은 없는지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범법자 교화 및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는 보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몸소 수행해보며 리더십도 함양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것.

또한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쓰는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제재할 때 사용하는 수갑·포승 등의 도구도 직접 사용해본다.

특히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현장견학이 이뤄진다. 셉테드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낙후된 지역에 비상등 및 CCTV 설치, 벽화 그리기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환경개선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보호직 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실시되며, 체험시간 및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약 3시간동안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문의 051-580-3088

▶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보호직 공무원: 법무부에 소속되어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도 책임진다. 보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이 사례는 이동곤 경북 대영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Only One"

경북 대영중의 Wee클래스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자존감 향상!'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교우·가족 관계와 진로·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기 쉬운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드게임으로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작은 성공경험 체험으로 자신감 찾기'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또래 도우미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솔리언 또래상담사를 활용한 멘토링'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과 '사제동행 멘토링'이 특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화 감상하고 친구와 느낀점 나누며 '자존감 회복'

'친구사랑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5명과 또래 멘토 5명이 모여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점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다리와 팔이 없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사는 호주인 '닉 부이치치'의 영상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성악가로 성장하는 '파파로티' △위안부 피해자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아이 캔 스피크' 등을 관람하고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말문을 잘 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담교사는 '내가 닉 부이치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옥분할머니였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등의 질문이 적힌 활동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활동지에 정리한 뒤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은 용기를 얻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감상평을 나누며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인도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난독증으로 학업능력이 뒤처져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으나 미술 교사를 만나 자신의 그림 재능을 발견하고, 점차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사람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온리 원(Only one)'이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너희도 '넘버 원'보다는 각자의 재능을 살린 '온리 원'이 돼보자"는 상담교사의 말에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인관계 개선해주는 '사제동행 멘토링 활동'

가족 또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사제동행 멘토링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ee클래스와 교내 연구부, 학생부, 교육복지부의 협업으로 운영됐는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또래 멘토, 자발적 참가자 등 1~3

학년 학생 30명 가량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탐방하고, 경북 상봉역으로 기차여행을 떠났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기차와 관광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정을 나누고, 정서적인 안정을 충족했습니다.

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서대문 역사관에서 특정 인물을 찾고, 그의 활동 조사하기' '수목원의 식물을 휴대폰으로 찍어 교사에게 전송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었고, 교우관계가 개선돼 학교로 돌아가서도 인사를 나누며 돈독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충북지역 교사동아리 '샘나(SEMRA)'

전자현미경으로 식물 관찰하고, 사진전 열며 교사 역량 UP!

충북지역에는 생물(생태)에 관심이 많은 초·중·고 교사 50명이 모여 만든 동아리 '샘나(SEMR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Research Association)'가 있다. 샘나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생태의 과학적인 현상을 교사들이 직접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 체험·연구해보며 교사의 역량을 신장하고, 이렇게 쌓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들어졌다. 샘나 소속 조진선 충북 원봉중 과학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교사 역량 강화로 교실 수업 개선!

샘나 소속 교사들은 한 달에 한번 둘째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교사들은 생물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동료교사에게 발표하는 학술 활동과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에 방문해 전자현미경으로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동아리 활동은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수업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뿌리, 줄기, 잎, 꽃잎 등 '식물의 구조'에 대해 발표하면 설명을 준비하는 교사도, 발표를 듣는 교사도 보다 정확하게 식물의 구조를 이해해 수업 역량이 신장되는 것.

조 교사는 "생물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교과 융합의 아이디어도 얻는다"며 "미술교사는 식물의 형태와 색을 관찰하며 창작활동의 아이디어를 얻고, 기술교사는 이러한 식물의 특성을 활용해 어떤 기술과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학생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은 식물의 표면구조나 꽃가루 등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으로 촬영해 수업 자료로 활용했다. 조 교사는 "학생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물의 표면과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보며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데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교사 동아리에서 쌓은 지식을 지역 사회로 환원!

샘나 소속 교사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쌓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생명의 신비함과 생물체의 생존방식 등을 알리는 '비밀의 화원' 사진전을 10년간 실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청주 근교의 초·중학교 교정에 설치된 식물 정보 안내 팻말을 교체·수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대부분의

생태학에 대한 학술 활동을 진행중인 '샘나' 소속 교사들. 조진선 교사 제공

학교는 교정에 여러 식물을 심고 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 팻말을 곳곳에 설치하는데, 팻말 속 내용이 지워져있거나 틀린 경우가 있었던 것.

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당 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생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와 수업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환원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e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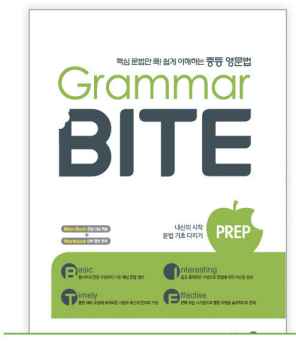
한 번에 잡자!

Grammar BITE

내신 및 서술형 완벽 대비
한발 앞선 수능 절대평가까지 대비

Reading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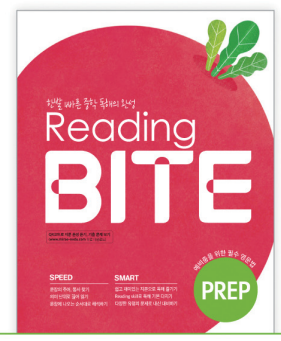
끊어 읽는 직독직해로
중학 독해부터 수능 독해까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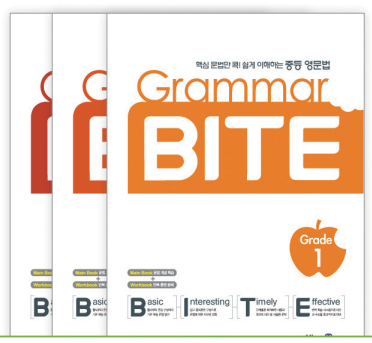


예비중을 위한
개념부터 내신 대비까지
중등 영문법 기초 다지기

PREP

예비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중등 영어 독해 기초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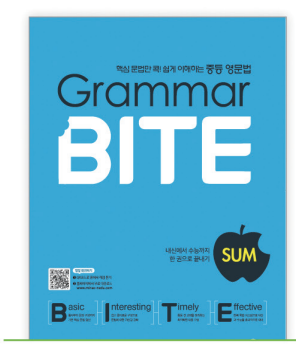




내신대비,
서술형에서 수능까지
중등 영문법 완성하기

Grade 1, 2, 3

끊어 읽고
직독직해하며
유형 중심 중등 영어
독해 완성하기



예비고를 위한
내신에서 수능까지
영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

SUM

예비고를 위한
유형별 학습전략으로
한발 빨리 수능 독해 준비하기